

東洋グループ事件の経過と争点

第7回東アジア倒産再建協会恒例シンポジウム

2015. 9. 12-13. / ソウル

ソウル中央地方法院

部長判事 リ・ゼヒ(李在熙)



目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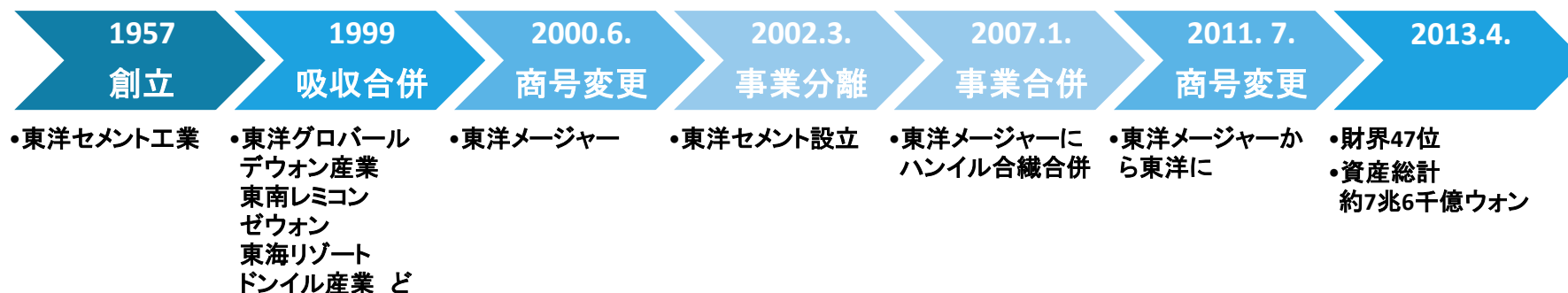
- 東洋グループの現況
- 破綻の原因及び進行
- 争点及び処理の経過

東洋グループの現況



沿革及び関連会社の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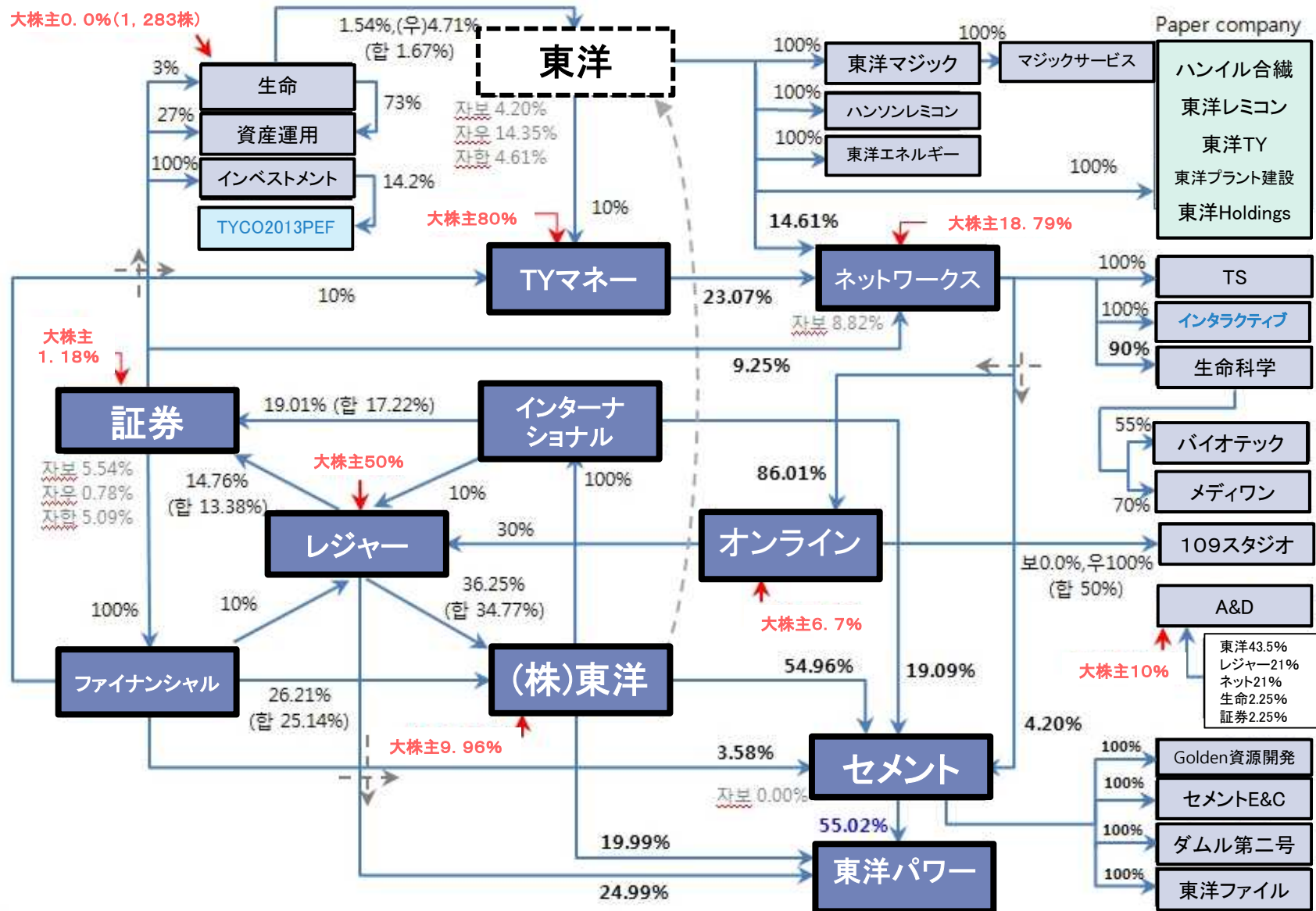
1. 主要沿革



2. 関連会社の状況

- 32個の国内系列社と26個の海外系列社

関係会社間持分構造



破綻の原因及び経過



破綻原因及び経過1

1. 破綻原因

財務構造の悪化	社債満期延長が困難
<ul style="list-style-type: none">建設景気低迷が続く借入金の累積	<ul style="list-style-type: none">信用評価等級「投機等級」第1金融圏からの借入れ不可第2金融圏、CP、社債発行金融投資業法の改正 (2013.10.24.)
構造調整の遅延	
<ul style="list-style-type: none">系列社売却の難航	

破綻原因及び経過 1

2. 回生手続申立て当時の会社毎の財務現況

会社名	総資産	総負債
東洋	9,506億ウォン	1兆 3,711億ウォン
東洋レジジャー	1,821億ウォン	7,224億ウォン
東洋インターナショナル	752億ウォン	6,178億ウォン
東洋セメント	<u>1兆 2,503億ウォン</u>	<u>9,274億ウォン</u>
東洋ネットワークス	2,184億ウォン	3,200億ウォン

破綻原因及び経過 2

3. 個人債権者の現況(金融機関、商取引債権者は除く)

商品	個人債権者数(名)	金額 (単位: 百万ウォン)
東洋インターナショナル(信託)	10,233	290,040
東洋社債	28,549	860,216
東洋レジャー(信託)	5,594	165,592
東洋セメント	8,127	247,704
その他(TYサクセス_信託)	5,111	158,336
合計	57,614	1,721,888

破綻原因及び経過 3

4. 経過

会社名 \ 経過	回生申立て	開始決定	認可決定	終決決定
東洋	2013. 9.30.	2013. 10. 17.	2014. 3. 21.	
東洋レジャー	2013. 9.30.	2013. 10. 17.	2014. 7. 11.	2015. 5. 21.
東洋インターナショナル	2013. 9.30.	2013. 10. 17.	2014. 3. 20.	2015. 3. 6.
東洋ネットワークス	2013. 10. 1.	2013. 10. 17.	2014. 3. 18.	2015. 3. 10.
東洋セメント	2013. 10. 1.	2013. 10. 17.	2014. 3. 18. (強制認可)	

東洋社債・CP被害最大 2兆ウォン・・・補償も難しい

個人投資者4万名はパニック

東洋証券営業場に被害者押入り喧嘩

6000余件の被害届けを受け付けた消費者団体「集団訴訟」

“오늘 만기가 돌아온 것은 받아줘야 하지 않아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돌려줄 수 있다며 안심하라고 했잖아요. 사기꾼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동양 회사채에 투자한 60대 여성)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30일 서울 을지로2가 동양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피해를 보게 된 회사채,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일시에 몰려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 만기 도래한 ㈉동양 회사채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한 60대 여성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만나야겠다고 영업점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윤현하 씨(66)는 “CP가 뭔지도 모른 채 동양증권 직원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CP 2억원어치를 샀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 관련 피해 신고를 이날까지 6000건 가까이 접수했고,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기업의 법정관리에 불안을 느낀 고객들의 예약금 인출도 이어져 동양증권은 이날 하루에만 1조원의 자금이 빠져 나갔다.

◆피해자 대부분 개인투자자
법정관리 신청 3사가 동양증권을 통해 발행한 채권 규모는 약 2조원, 투자자는 4만 1000여명으로 대부분 개인이다. 피해자는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2만명)의 2배 수준이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출금, 채권, 주식 등은 법원 파산부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조정돼 채권자들에게 일부 돌아가지만 회사채나 CP 같은 채권은 원금을 대부분 날리는 게 보통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현재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 회사채는 8725억원어치로 투자자 2만8168



争点及び処理経過



手続的併合(procedural consolidation)関連 1

1. 手続的併合の必要性

- 各会社の利害関係は各会社債権者の利害関係に直結⇒迅速で効率的な理解関係の調整が必要
- 各会社内に散在している情報の収集及び制限的な共有
- 各会社間で共通する突発的な状況に効果的に対処
- 時間及び費用の節減

2. 管轄の集中

- 債務者回生及び破産に関する法律
 - ✓ 第3条第2項：高等裁判所の管轄内の他の地方裁判所の本院にも管轄を認定
 - ✓ 第3条第3項第1号：系列会社の回生事件が係属している裁判所に管轄認定
- ⇒ 東洋セメントの場合、上記二つの場合の両方に当てはまるので春川地方裁判所からソウル中央裁判所に移送可能

手続的併合(procedural consolidation)関連 2

3. 事件の配当及び調査委員の選任

- 東洋、東洋レジャー、東洋インターナショナルは6破産部に、東洋ネットワークス、東洋セメントは4破産部にそれぞれ配当されたが、裁判場所はすべて同一場所
- 東洋、東洋レジャー、東洋インターナショナルはアンジン会計法人を、東洋ネットワークス、東洋セメントはデジュ会計法人を調査委員として選任

4. 各会社毎に管理人を選任

- 会社間において利害が衝突する場合も多く、会社毎に管理人を別々に選任
 - ⇒ 各会社に共通する共同管理人の選任(joint administration)等を内容とするアメリカ破産法上の手続的併合(procedural consolidation)とは異なる点がある
- ただし、利害関係の調整のために随時管理人全体会議を開催

実体的併合(substantive consolidation) 関連

1. 実体的併合の意味

- 実体的併合(substantive consolidation)：一定の場合、企業集団に所属している個別会社の法人格を無視して、企業集団のすべての資産と負債が一つの法人格を保有しているかのように統合して処理することで、一つの倒産財団を形成することを意味
- アメリカ倒産手続における衡平法上の権限(equity power)によるものであり、Worldcom事件やOwens Corning事件などで活用された

2. 実体的併合の採用の可否

- 韓国には実体的併合に関する根拠規定もなく、上記の法理を適用した事例もない
- 特に、東洋グループ事件においては、系列社間の株式担保提供の問題により各会社の債権者たちの間で利害関係の衝突が激しかった ⇒ 実体的併合を適用することが難しい

劣後化(subordination)関連 1

1. 劣後化(subordination)の適用範囲

- 劣後化(subordination)はアメリカの倒産手続において頻繁に活用されるものであり、主に権利の順位、つまり弁済順位を劣らせる制度として理解できる。
 - ✓ 合意による劣後化(consensual subordination)
 - ✓ 衡平法上の劣後化(equitable subordination)
- 韓国では回生計画において合意による弁済順位の変更を認めている(債務者回生及び破産に関する法律 第193条第3項)
- 実務上、合意による弁済順位の変更は珍しく、殆どの場合、特殊関係者の債権に対して減資率、弁済率、弁済時期などの差を設けることが多い(債務者回生及び破産に関する法律 第218条第2項)

劣後化(subordination)関連 2

2. 差別的減資(discriminatory capital reduction)

- 東洋：玄在賢会長とその一族等の特殊関係人の株式は全部無償消却、最大株主である東洋レジヤーは10:1に減資、出資転換債権者は5:1に減資
- 東洋レジヤー：特殊関係人である玄在賢会長の一族と東洋インターナショナル等の系列社の株式は全部無償消却、ゴルフ会員たちの入会保証金債権100%出資転換
- 東洋インターナショナル：唯一の株主である東洋の株式を900:1に減資、出資転換債権者は180:1に減資
- 東洋ネットワークス：玄在賢会長の一族と東洋の特殊関係者の株式を10:1に減資、一般の株主は4:1に減資
- 東洋セメント：特殊関係者を区分することなく、5:4に減資

⇒ 利害衝突の調整のため(後ほど説明)

劣後化(subordination)関連 3

3. 差別的弁済(discriminatory repayment)

会社名	債権種類		特殊関係人債権		備考
	一般回生債権		免除	現金弁済	
	出資転換	現金弁済			
東洋	55%	45%	90%	10%	
東洋レジャー	45.5%	54.5%	93%	7%	
東洋インターナショナル	82.7%	17.3%	95%	5%	一般債権者に限り 偶発利益追加弁済
東洋ネットワークス	35%	65%	-	-	債権届出放棄 (1,433億ウォン)
東洋セメント	-	100%	全額(個人) 50%(系列社)	50%(系列社)	

劣後化(subordination)関連 4

4. 弁済時期(time for payment)の差別

会社名	弁済比率(%) 回生債権	1	2	3	4	5	6	7	8	9	10
		東洋	一般債権	10	25	7	7	7	7	7	7
	特殊関係債権 (レジャー、インターナショナル、 ネットワークス、セメント等)	均等分割弁済									
東洋 インターナ ショナル	一般債権	75	20	5	-	-	-	-	-	-	-
	特殊関係債権 (東洋、ネットワークス、セメ ント等)	40	20	17. 2	3.3	3.3	3.3	3.3	3.3	3.3	3
東洋 セメント	一般債権	10	10	15	35	10	10	10	-	-	-
	特殊関係債権 (東洋、ネットワークス等)	-	-	-	-	5	5	5	5	30	50

利害衝突の調整 1

1. 東洋セメントの懲罰的減資の可否

- 財政的破綻に責任ある株主については、回生計画を立てる際に、株式の3分の2以上を、消却又は併合により減資するように定めている (債務者回生及び破産に関する法律第205条第4項)
- 系列社が発行したコマーシャルペーパー(CP)等を買取する方法で系列社を支援したことが東洋セメント破綻の主要原因の一つ
- 相対的に優良企業であった東洋セメントの株式を担保に各系列社がコマーシャルペーパー(CP)や電子短期社債を大量に発行
 - ⇒ 各系列社が保有している東洋セメントの株式について懲罰的減資を行う場合、各系列社の債権者たちの債権担保価値が大きく毀損されるので各系列社の債権者たちが強く反発
 - ⇒ 数回にわたる管理人全体会議を通じて、系列社が保有している東洋セメントの株式の殆どが担保として提供されている点を考慮し、懲罰的減資は行わないことを決定

“東洋、詐欺的CP発行”反発拡散

優良系列社「セメント」担保に投資者集め・・・法定管理申立てにより担保価値消え

☞동양 등 계열사 5개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비판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그룹 내 우량 계열사인 동양시멘트를 담보로 기업어음(CP)과 유사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며 투자자를 모아놓고 동양시멘트를 법정관리 신청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졌다. 원금 회수 ‘안전판’으로 내세웠던 동양시멘트를 법정관리에 맡기면서 손실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들은 ‘사기성 채권 발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판매에 나선 동양증권 직원들은 “우리도 속았다”며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 “안전하다”던 우량자산 법정관리

2일 동양증권에 따르면 ☞동양은 ‘티와이석세스’라는 페이퍼컴퍼니(SPC)를 통해 7월과 9월에 1569억 원어치 자산담보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채권은 부동산, 주식 등을 담보로 잡고 있어 보증이 없는 일반 CP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동양그룹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투자자를 끌어 모은 것. 30대 투자자 A 씨는 “동양증권으로부터 수익률 연 6.5%에 단기채권을 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계약했다”며 “동양시멘트 담보가 있어 발행사가 망해도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동양시멘트가 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주식의 담보가치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증권업계 안팎에서는 채권 발행사(☞동양)와 담보 제공사(동양네트웍스), 담보 당사자(동양시멘트)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동양 계열사들은 또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

金監院から社債発行禁止され
系列社間1300億ウォン「借り回し」
CP販売職員たち「私たちも騙された」
労組“セメント法定管理棄却を”嘆願

난달 23일 이후 13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상호 지원하며 ‘돌려 막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동양의 65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막은 전후로 벌어진 일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당국의 감시가 법정관리 직전까지도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동양증권,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반발

동양증권 임직원들은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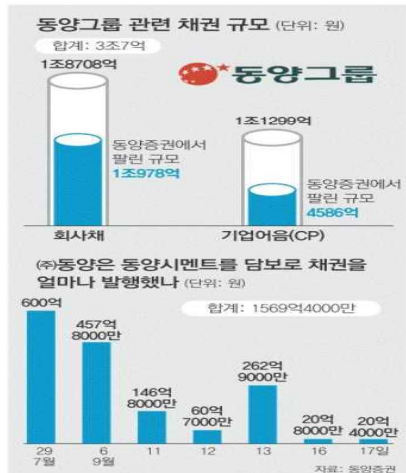
이 안전하다고 권유한 상품의 담보가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오너와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양증권 노동조합은 2일 춘천지방법원에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최근까지 절대 법정관리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채권 판매를 독려했지만 불과 얼마 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 회장이 기업 회생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기존관리인유지(DIP) 제도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법정관리를 악용했다”며 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양증권 임직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그룹 계열사 채권 일부를 ‘캠페인’을 통해 밀어내기식으로 할당받아 판매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2011년 LIG건설 사태처럼 동양그룹 경영진이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채권을 발행했는지, 이를 동양증권이 떠맡아 개인에게 판매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이상훈·손효림 기자 january@donga.com



東洋セメント減資説に 東洋被害者たち「非常」

법정관리 중인 동양시멘트가 대규모 감자를 실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동양 피해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동양시멘트의 감자가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감자 여부와 비율이 확정될 것”이란 소문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티와이석세스 피해자 모임 대표는 “그제 믿을 만한 곳에서 (동양시멘트의) 감자 이야기를 들었고, 어제 비공식적으로나마 감자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동양은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티와이석세스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지난 7~9월 약 1천 57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전자단

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동양시멘트 최대주주인 동양의 보유지분율은 54.96%로 지난 21일 종가(1635원) 기준으로 1206억원 어치에 달해 전량 매각할 경우 티와이석세스 피해자들은 원금을 상당 부분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대규모 감자가 이뤄지면 이 상품은 말 그대로 휴짓조각이 된다.

동양과 2대 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19.09%) 회사채 및 CP 투자자 역시 회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정관리인인 김종오 동양시멘트 대표이사과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주심판사를 대상으로 탄원서 보내기 운동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利害衝突の調整 2

2. 未履行双務契約(executory contract)の解除

- 回生手続において、債務者は、双方が未履行状態である契約の場合、契約上の解除事由がなくても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債務者回生法第119条)
- 東洋インターナショナルが東洋セメントの輸出を代行⇒ 東洋セメントの回生手続開始決定後、輸出代行契約の解止及び輸出代行業務のため東洋インターナショナルに出向していた職員の復帰を推進
- 輸出代行契約の解止すると、東洋インターナショナルは清算価値(liquidation value)が継続企業価値(going concern value)を超過する。又、職員の復帰によって営業秘密流出等の不正競争行為が発生する危険があり、強い反発
 - ⇒ 裁判所の仲裁により、東洋セメントは2015年末までの2年間、輸出代行契約の維持を保障し、東洋インターナショナルは契約期間終了後、職員の復帰に対して異議を述べないとする事で解決

利害衝突の調整 3

3. 差別的弁済率の適用

- 系列社の債権に対する差別的弁済率の適用は当該会社の債権者の利害関係に直接的な影響を与える
- 管理人全体会議を通じて、各会社毎の弁済能力、一般債権者に対する弁済率等を考慮し、系列社債権についての差別的弁済率の水準を決定

4. 否認権の行使(Avoidance)

- 東洋インターナショナルや東洋ネットワークスなどは保有している東洋セメントの株式を、大株主個人や他の系列社の債務に対する担保として提供
 - ⇒ 否認請求等によって裁判進行中である

大規模債権団の問題 1

1. 問題の所在

- 第1回関係人集会、回生計画案審理及び決議のための関係人集会を必ず開催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ただし、2015. 7. 1.から第1回関係人集会は任意的なものに変更
- 東洋グループ事件の場合、個人債権者の数だけで約57,000名であり、特に東洋の債権者数が約37,000名である
- 裁判所内部施設を利用する場合、他の法廷に中継施設を設置するとしても、最大収容人員は1,200名に過ぎなかった
- 回生計画案が可決されるためには回生担保権者の3/4、回生債権者の2/3の同意が必要であるが、東洋グループ事件の場合、債権者の数も多く、全国に散らばっており、可決要件の充足が容易ではない状況であった

3万7000名・・・(株)東洋債権者たち

本日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に駆け込むか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건물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갔다.

건물 밖 주차장에는 차량을 빼내고 천막을 쳤다. 1층 식당과 2층 복도, 입찰 법정엔 대형 TV와 간이의자를 갖다 놓았다. 21일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열릴 주식회사 동양의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회생 재판 절차 중 하나)에 출석할 채권자 수천명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21일 재판부는 채권자들을 불러 파산관리인이 만든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은 뒤 채무액의 3분의 2(약 7099억원)를 넘는 찬성표가 나오면 통과시킬 예정이다.

문제는 '동양 사태' 피해자가 엄청난 규모(3만7000여명)여서 큰 혼잡이 예상된다. 상당수가 출석하지 않고 채권자 단체(비상대책위원회)나 ㈜동양 직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법원은 그런 점을 감안해도 전국에서 최소 2000명 이상 몰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중 10%만 출석해도 3700여명으로 기업회생

**東洋グループ回生計画案集会
一氣に駆け込む可能性に備え
駐車場・食堂・廊下にTV設置
裁判所、800万ウォンでOCR機借りる
名前を呼名する代わりにカードでチェック
救急車待機・・・リハーサルも**

사건에서 극히 사례가 드문 '빅 이벤트'다.

동양그룹은 부실한 재정 상태를 숨긴 채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현재현 회장 등 경영진 11명은 현재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동양 계열사들은 줄줄이 회생 절차를 밟는 중이다. 동양네트웍스(14일)를 비롯해 동양시멘트(18일)와 동양인테리어셔널(20일)의 회생이 결정됐고 21일은 '동양 사태'의 핵심인 ㈜동양 차례다.

파산부는 이날에 대비해 며칠 전에는 리허설까지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양시멘트 회생 재판 때 한바탕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채권자 1000여명이 모이자 법정이 미어터진 것은 물론 재판부가 채권자들을 호명해 찬반 의사를 묻는 데에만 1시간30분이 걸려 판사들의 목이 일 정도였다. ㈜동양 재판엔 몇 배 인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마터면 '체육관 재판'이 될 뻔도 했다. 2012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대전지법이 체육관에 200여명을 모아놓고 채권 조사를 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법원 근처의 서울교대 체육관을 빌리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보안 문제 등으로 중단됐다.

대신 최초로 기업 주주총회 등에 쓰는 'OCR 기기(광학식 문자 판독기)' 한 대를 하루 사용비 800만원을 주고 빌려 왔다. 채권자들이 자리에 앉아 OCR 카드에 인적 사항과 찬반 여부를 적고, 법원 직원들이 돌아다니며 카드를 걸어 OCR 스캐너에 넣으면 법정 안 대형 스크린에 '○○○씨 찬성' 등으로 투표 내용이 뜨고 찬반 비율도 실시간으로 집계된다. 1분당 100~150장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다 수작

업보다 오류 가능성이 낮아 효율적이다.

법원은 건물 밖 주차장(330㎡)에 대형 천막을 치고 안내 데스크를 설치해 채권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한편 투표용지를 받을 2층 접수창구의 위치를 알려준다. 회생 관련 법원 실무관 8명이 출동해 질서 유지를 돕는다. 먼저 온 채권자들이 실제 재판이 열리는 1호 법정(465명 수용)을 꼭 채우면 다음엔 바로 옆 입찰 법정(234명 수용)과 복도(200명 수용), 1층 식당(300명 수용)에 자리해 64인치 대형 TV로 재판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이렇게 하면 최대 12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경찰 50여명과 구급차도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초 동양사태 피해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해 청와대에 전달하려 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기도 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사법부에서 유례가 거의 없는 초대형 사건 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건물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채권자들을 상대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을 예정이다. 연례 회생 재판의 수천 명이 몰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大規模債権団の問題 2

2. 債権者協議会及び債権者団体構成を積極的に支援

- 東洋被害者対策協議会等個人債権者団体に事務室を提供、諮問機関である法務法人の選任を支援
- 個人債権者代表を債権者協議会構成員として編入
- 債権者団体に共同管理人の推薦権を付与

3. 債権者に対する情報提供

- 管理人又は会社関係者が地方を巡回しながら説明会を開催するように勧誘
- テレマーケティング網、SNS、E-mail、会社ホームページ公告など様々な方法を使って情報提供及び債権者の参加を督励

大規模債権団の問題 3

4. 回生計画案の一本化

- 会社が提出した回生計画案とは別途に、各債権者団体等から4つの回生計画案が提出される
- 裁判所の積極的仲裁で回生計画案の一本化に成功し、可決の可能性が上がる

5. 委任状の収集による議決権の集中

- 数回に渡って案内文を発送するなど、債権者の参加率が低いと回生計画案が可決されず会社が回生できないという点を訴える
- 空間的制約等の問題があったので、直接参加より、なるべく委任をするように誘導
- 複数の債権者団体の中でもっとも信頼できる団体を選択し、議決権を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議決権の委任を積極的に誘導

大規模債権団の問題 4

6. 集計方法の改善

- 従来の集計方式: 個別債権者を直接呼名し意見を聞く方式
- 債権者が大規模である場合、従来の方式で投票の結果を集計すると所要時間が長すぎるし、困難を招く恐れあり
- 投票結果を迅速で正確に集計するためにOCR機(Optical Character Reader、光学式文字読取装置)を集計手続に導入
- 投票及び集計過程の公正性と透明性を確保するために裁判所の職員、会社職員、債権者代表が3人1組になり投票箱を持ち運びながら議決表を集める
- 債権者たちはOCR機による読み取り過程がライブで中継される大型画面を見て自分の投票結果と全体集計結果を直接確認
- 議決表の集めと集計に20分程の時間が所要

大規模債権団の問題 5

議決表様式(例示)

(株)東洋第3回関係人集会議決表(事件番号2013回合186)

債権者番号	11265000
-------	----------

1. 債権者確認

委任有無	目録番号	届出番号	名 前		確認署名
<input type="checkbox"/>	担保権 1	担保権 20	債権者(本人)	韓国産業銀行	
			代理人		

*委任された場合は委任有無の欄に“○”を表記し、代理人の名前及び確認署名を記入してください。

2. 議決権の確認及び回生計画案の議決

債権種類	議決権額
回生担保権	69,246,621,511

回生計画案に対する議決	
賛成	反対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集会続行に対する議決	
賛成	反対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大規模債権団の問題 6

● 集計過程の画面(例示)

No.	債権者番号	債権者名	議決権額	回生計画に対する 投票結果	
				賛成	反対
1	11065000	韓国産業銀行(銀行長 ホン・ギタク)	₩69,246,621,511	賛成	
2	11065002	TYサクセス第一次(株)(代表取締役 グ・ボンジュ)	60,530,958,904	賛成	
3	11065003	TYサクセス第二次(株)(代表取締役 グ・ボンジュ)	46,183,756,987	賛成	
4	11065004	TYサクセス第三次(株)(代表取締役 グ・ボンジュ)	14,814,448,934	賛成	
5	11065005	TYサクセス第六次(株)(代表取締役 グ・ボンジュ)	6,124,241,655	賛成	
6	11065006	TYサクセス第七次(株)(代表取締役 グ・ボンジュ)	4,473,054,000	賛成	
7	11065007	TYサクセス第八次(株)(代表取締役 グ・ボンジュ)	2,100,319,941	賛成	
8	11065008	TYサクセス第九次(株)(代表取締役 グ・ボンジュ)	2,059,083,941		反対
9	11065009	建設控除組合(組合長 ジョン・ワンデ)	3,085,584,910		反対
10	11065010	ダムル第六号有限公司(代表取締役 シン・ウンヒ)	253,932,641	賛成	
11	11065011	(株)ユポン(代表取締役 ジョ・ビョウウ)	510,620,000	賛成	

大規模債権団の問題 7

● 集計結果画面(例示)

回生計画案同意有無に対する議決結果[株式会社 東洋]			
1. 回生担保権 議決現況			
* 全体議決権額の3/4以上の同意で可決(75%)			
区分	議決権額	比率	議決結果
議決権総額	¥ 209,382,622,575	100%	可決
認可必要議決権額	157,036,966,931	75.0%	
賛成議決権額	200,036,966,932	95.5%	
2. 一般回生債権の議決現況			
* 全体議決権額の2/3以上の同意で可決(66.7%)			
区分	議決権額	比率	議決結果
議決権総額	¥ 1,069,175,425,172	100%	可決
認可必要議決権額	712,783,616,781	66.7%	
賛成議決権額	730,083,616,782	68.3%	

M&A

1. 債務弁済の資金集めのために、各系列社が主要資産として保有していた系列社の持株の売却が必要

2. M&A 現況

- 東洋証券：東洋レジャーと東洋インターナショナルが保有していた持株をユアンタ証券に約1,212億ウォンで売却完了
- 東洋マジック：東洋が保有していた持株をNHグレンウッドコンソーシアムに約 2,800億ウォンで売却完了
- 東洋パワー：東洋、東洋レジャー、東洋セメントが保有していた持株をPOSCOエネルギーに約4,310億ウォンで売却完了
- 東洋セメント：東洋と東洋インターナショナルが保有していた持株の売却を進め、2015年9月末に売却終決予定

(株)東洋回生計画案議決・・・CP投資者等債権者1000余名参加 裁判所・会社・債権者「3拍子」・・・東洋を生き返らせた

債権者に10年間分割弁済
個人債権者持分が86%

一部高齢の債権者たち
「10年は待てない」と反対

“대구에 사는데 관계인집회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나이가 80인데 10년간 변제를 하면 어떡합니까.”(개인 채권자 양모씨) “일단 회사를 살려야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최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았습니다.”(모 채권자단체 대표)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아침 일찍부터 1000여명의 사람들이 몰렸다. ㈜동양 2·3차 관계인 집회에 참석한 채권자들이다. 이들은 오전 10시 일제히 회생계획안에 대해 찬반을 표시한 OCR(광학식 문자판독기)카드를 투표함에 넣었다. 20분 만에 결과가 나왔고 법원의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여경을 포함해 경찰 100여명을 대기시켰지만 큰 소란 없이 관계인집회는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동양 사태’의 핵심 계열사 ㈜동양의 회생계획을 통과시켰다.

◆눈물 닦아준 ‘법원’
㈜동양 회사채·기업어음(CP)에 투자했던 개인 채권자들은 투자금의 45%는 현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받게 된다. ㈜동양에 대한 채권자 출자전환이 이뤄지고 나면 ㈜동양은 86%의 지분이 개인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동양 회생 인가는 법원과 회사, 채권자단체들이 힘을 모아 극적으로 이뤄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1일 열린 ㈜동양의 제2·3차 관계인집회에 동양그룹 채권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다. 당초 ㈜동양은 채권자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사상 최대 규모 채권자(3만7000여명)가 있다 보니 회생계획안 통과가 불투명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관계인 집회에서 전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한다.

㈜동양 채권단은 회사채를 매입한 2만8549명, 특수목적법인 티와이석세스를 통해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한 5100여명 등으로 구성된다. 관계인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부결’로 처리돼 의결권 위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법원은 지난해 ㈜동양 1차 관계인 집회 때는 1400여명의 채권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이들을 수용할 장소가 없어 소위 ‘멘붕’(멘탈붕괴·심리적

으로 충격을 받은 상황)을 경험했다.

그동안 법원은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와 ‘동양 피해자대책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의결권을 모아줄 것을 독려했다. 때문에 이날 참석한 채권자는 예상보다 적은 1000여명이었다. 정성수 ㈜동양 관리인은 “채권자들이 ㈜동양을 회생시키고자 한마음으로 의결권을 위임해 불가능할 것 같았던 회생 인가를 이뤄냈다”며 “법원도 OCR 기기를 도입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채권절반 출자전환…86% 개인 주주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동양은 채권자에게 10년간 나눠 변제하기로 했다. 출자전환 후 개인 채권자의 ㈜동양 지분율은 86%가 돼 일종의 ‘시민기업’이 된다. 코

스피 상장사인 ㈜동양은 이날 상장폐지도 면하게 됐다. 회생계획안대로 출자전환이 이뤄져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않으면 상장폐지가 될 상황이었다.

이날 법정에선 고령의 채권자를 중심으로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발언이 나왔다. 자신을 70세의 암환자라고 소개한 한 채권자는 “10년간 산다는 보장을 못한다. 변제기간을 앞당겨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오늘 ㈜동양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면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된다. 기업은 기업대로 죽고, 주식 가치가 사라지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채권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안대규/배석준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東洋グループ消えたが 系列社は次々と正常化

동양사태 일지

일시	내용
2013년 9월 30일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기업회생절차 신청
10월 1일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기업회생절차 신청
10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동양그룹 5개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4년 1월 28일	검찰, 현재현 회장 등 4명 구속기소 등 총 11명 사법처리
3월 13일	대만 유안타금융그룹, 동양증권 인수
2015년 3월 6일	법원, 동양시멘트 기업회생절차 종결 승인
3월 10일	법원, 동양네트웍스 기업회생절차 종결 승인
3월 11일	법원, (주)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보유 동양시멘트 주식 매각 결정
5월 21일	법원, 동양레저 기업회생절차 종결 승인

동양그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계열사들은 속속 법정관리에서 졸업하며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관리 돌입 이후 자산매각 등 회생계획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기업회생절차 모범생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예상보다 빨리 흑자전환에도 성공하면서 사세를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동양레저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조기 종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양레저가 법정관리에 돌입한 지 1년7개월여 만이다. 법원은 “동양레저가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해 재무구조를 파격적으로 개선했다”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동양레저는 동양파워, 동양증권 지분 등 주요 자산을 매각하면서 확보한 현금으로 법정관리에 돌입한 지 1년여 만에 5000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조기 변제하는 데 성공했다. 동양레저 채권자 변제율은 54.5%였다. 아울러 2000억원 규모 골프장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은 100% 출자전환했다.

회생계획안에 포함됐던 경기 안성 파인크리크CC와 강원 삼척 파인밸리CC의 대중제(퍼블릭) 전환도 성공했다. 지난달 파인크리크CC 대중제 전환 승인이 난 데 이어 이달 들어 강원도청에서 파인밸리CC까지 전환을 승인하면서 법정관리 졸업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골프장 내장객 수도 증가 추세로 전환하면서 올해 흑자전환이 유력한 상황이다. 파인크

리크CC 내장객 수는 대중제 전환 전인 지난해 8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명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대중제로 전환한 만큼 10만명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동양레저의 법정관리 졸업으로 2013년 동양사태로 법정관리에 돌입했던 동양그룹 5개 계열사 중 모두 3개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 상태다. 앞서 지난 3월 동양시멘트가 가장 먼저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데 이어 같은 달 동양네트웍스가 법정관리에서 졸업했다.

동양시멘트는 자회사 동양파워를 매각하며 2193억원에 달하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금액을 조기 변제했다. 아울러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동양사태 충격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동양그룹 해체로 타격이 컸던 동양증권은 지난해 3월 대만 유안타금융그룹에 인수되며 국내 유일 증화권 증권사로 변신했다. 동양사태 이후 7분기 만인 올 1분기 흑자전환에도 성공했다.

여전히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주)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의 법정관리 조기 졸업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법원이 지난 3월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졸업과 동시에 (주)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지분(74.1%) 매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오는 29일 매각공고가 예정된 동양시멘트 매각 전에는 한일시멘트, 라파츠한라, 삼표, 유진 등이 이미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흥행 열기가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오수현 기자

**東洋レジャー 法定管理
昨日早期終結承認
系列社5社中3社卒業**

Thank you

